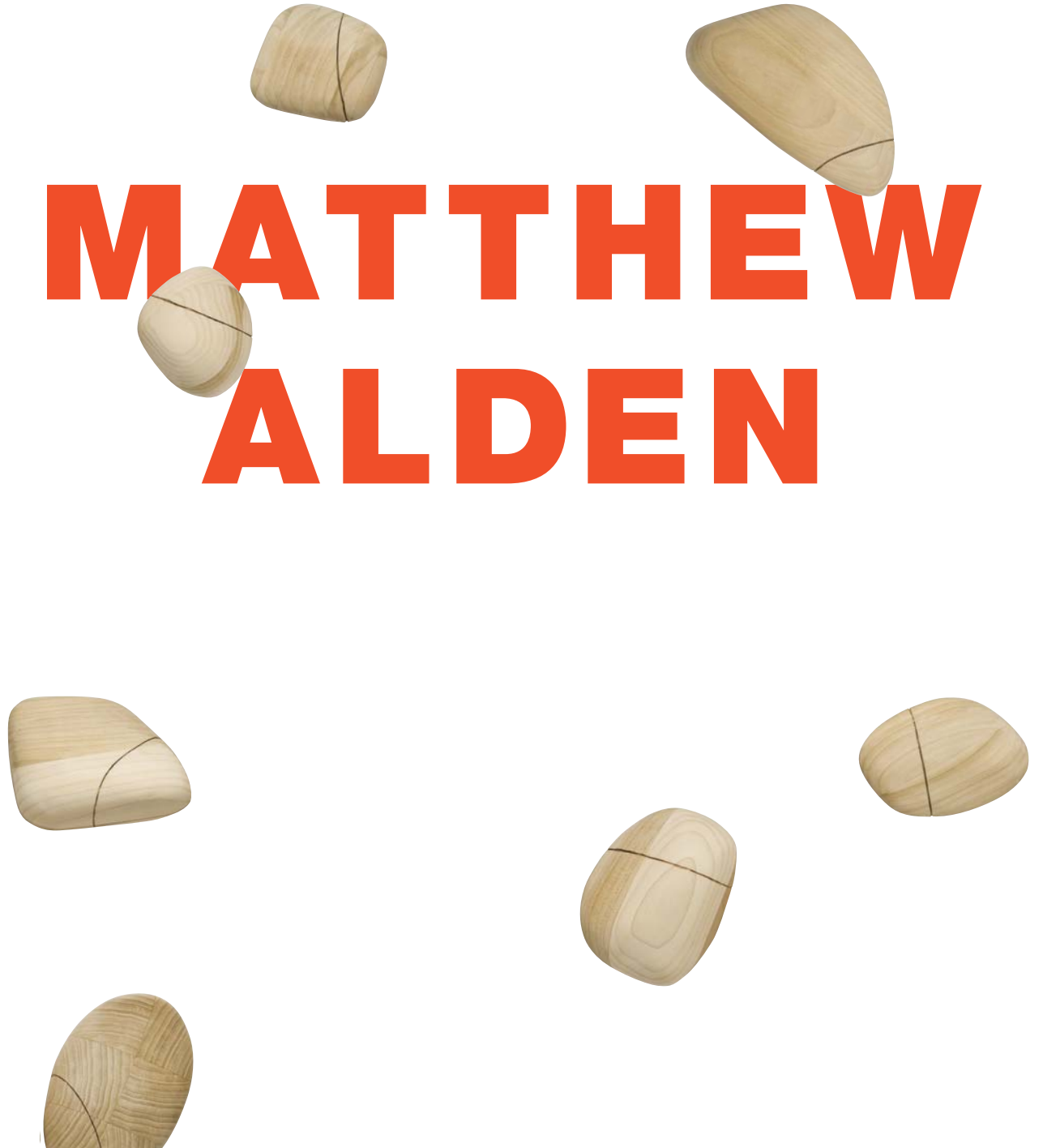




MATTHEW ALDEN



Matthew Alden Price & Won Kyoung Lee

December 31, 2008 ~ January 6, 2009

Seoul Gana Art Space 1F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1층)

Opening Reception : December 31(Wed), 2008, 5-7pm

Matthew Alden Price Solo Show (초대 개인전)

January 9 ~ January 30, 2009

Busan Suka Art Space (부산 수카갤러리)

Opening Reception : January 9 (Fri), 2009, 4pm

Copyright©2008 Matthew Alden Pric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rtist.



Fireplace, 2008 10' x 4' x 3'



Box, 2007, Ceramic, mixed media 22" × 36" × 36"



Artist Statement

I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in 1980. As a child I spent my summers at our family's century-old cottage on the New England coast. Each year at summer's end, after three months immersed in water and wilderness adventures, my mother would pack our belongings for a journey back to school and home in Columbus, Ohio "the land of concrete." Over the years I came to float seamlessly between these two domains, one of bare feet on dirt roads and another of sophistication, innovation, and progress.

The vocabulary that I use as context for my work is derived from being raised in two different landscapes. The words used to describe each place, as well as my work, are the same but the definitions shift in relation to the context. I create transient structures by using line to divide and interpret space remarking on residual sites (as memory) or developmental sites (as projected design).

My work is the residue of time spent in the studio. I do not know what I will make next year. I work along a linear path questioning the progression of my work while scrutinizing and analyzing the tactile sensibilities of each piece as it relates to the concept. This is done with a high level of regard to those things around me. I am influenced by place.

- Matthew Alden Price

Arch, 2008 9' × 8' × 1.5'

Matthew

물음과 답은 감각적 경계이다.

강 선 학 (미술평론)

Shim Chair Materials : Cedar shims, oak poles, stainless steel fittings

Seat width 18", Seat depth 16", Seat height 17.5", Seat back height 34"

다리가 하나 없는 나무의자에 나무가 아닌 다른 물질의 다리를 붙여서 기능을 하게 한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굳이 나무의자에 네 개의 나무다리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지고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이 매트리의 작업이다. 엉덩이를 대는 시트 부분도 한 개의 판자로 만들 이유는 없다. 작은 나무들을 집적해서 그 기능을 하게 하면 된다. 의자는 기능하는 것이지 의자라는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작업은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사물의 전형적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하는 관계를 다르게 보아봄으로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다. 매끈하게 처리할 부분은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면 충분하고 아래 부분을 굳이 매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제시 하면서 집성목의 흔적들을 그대로 두어서 그에 답하는 것이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매트리의 작업은 제시되는 오브제의 이중적 시선, 혹은 거울에 비치듯 접면되어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 제시된 오브제를 감각적으로 만드는 독특한 감수성을 만나게 한다.

Line Drawing_III Porcelain, melamine, 28" × 72" × 12"

선반 위에 포개져 놓인 컵처럼 선반 아래에도 배치해서 물에 비친 듯 한 형상을 제공하지만 반복되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배치나 구성은 오브제가 가지는 당연한 중력을 거스르게 함으로 힘의 균형에 긴장을 유발시키고 시각적 인상을 민감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상하의 대비적 형상은 그 사이에 놓인 선반을 하나의 경계로서 비물질화 한다. 오브제가 놓이는 선반이 아니라 두 형상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교체된다. 그것은 물질적 선반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 사이를 갈라놓거나 이어놓는 경계 혹은 심리적 선으로 전환된다. 선반이라는 오브제의 비물질화이다. 선반 상하에 배치된 컵들은 중력을 벗어나 공중에 부유하듯 우리 시선에 잡힐 수밖에 없다. 특히 선반 아래에 매달린 듯 한 유리병의 배치는 주동이가 선반에 고정되고 속의 물질들로 해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력에서 자유로운 형상을 보여준다.

Line Drawing_VIII (20 percent) Glass, enamel, melamine, 8" × 16" × 5"

그의 작품은 대체로 하나의 중심선을 기선으로 하고 있다. 주로 가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 위로 혹은 아래로 사물을 배치하는 구성이다. 때로는 네 개의 병을 선반 위에 가지런히 맞대어 놓고 하나의 병에 검은 띠를 둘러 선을 만든다. 어느 시점에서나 드러나는 이 검은선은 선반의 가로선과 대비되면서 선반과 병의 바탕, 주동이의 선들과 함께 수평의 정향을 정해준다. 그리고 이 검은 가로선은 선반과 병 모두를 평면으로 전치시키면서 무게감을 탈가시켜버린다. 그의 작품을 특성화 하는 가로선은 무게와 방향성을 잃게 하고 오브제를 부유하게 하는 독특한 시각체함을 안겨준다.



Shim Chair, detail 2007

Line Drawing_VIII Wood, acrylic, 6" × 18" × 12"

아크릴 상자 안에 놓인 나무로 깎은 몽돌 같은 오브제에 선을 그어놓았다. 몽돌에서 흔히 목격되는 자연스런 모양이자 선이다. 이 오브제는 작은 나무 토막들을 집성해서 하나의 돌 모양을 만든 것이고 그 선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선으로 형성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인위적인 선이다. 선에 대한 집착 혹은 선이 가진 감성적 민감성을 목격하게 되는 부분이다. 몽돌의 선은 견고한 입체감과 함께 가벼움과 섬세함을 준다. 그 선들은 몽돌을 외부와 단절시키면서 개별화시키기보다 서로 연결해서 일체감을 이룬다. 상자 속의 오브제는 선에 의해 분절하기도 하고 하나로 이어주기도 하면서 물질적 특성보다 시각적인 무중력성을 보여준다. 재현으로서 어떤 지칭대상을 보여주지만 대상의 물성을 부정한다.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도 이중적 읽기를 요구한다.

Table Ceramic, mixed media, 4" × 5" × 5"

이런 선들이 유독 강하고 노골적이라 거의 눈치 채기 힘든 작품이 빨강 고무줄로 네 개의 도자 흙용지(stoneware, 석기)를 묶어 바퀴 달린 운반대 위에 올린 작업이다. 기하학적 형태가 아닌 육면체의 도자흙 네 덩치를 하나로 묶어보았지만 이 작업에서는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예리한 선들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운 경계가 거칠게 보이고, 이들을 묶은 붉은 고무밴드 역시 굵고 둔탁하게 이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보일 뿐, 선이라는 인상은 미약하다. 그러나 역지로 묶인 듯 한 이 입방체들은 밑에 달린 바퀴에 의해 일순 그 무게감이 없어지고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이다. 내재된 운동감은 이동가능성을 시각화함으로 기만한 선적 감각이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동가능성은 무게감을 덜어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 무거운 입체감이 만든 둔탁한 선들이 어느 순간 날렵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물에 내재된 운동감을 보여주는 작가의 감각적 민감함에 다르지 않다. 무거움, 둔함, 강제된 무게를 바퀴 하나로 단번에 자신의 문맥으로 수렴하는 이 작품은 작가의 감성의 폭을 넘지시 보여주기도 한다.

Composition #5 Wood, glass jar, 4" × 13" × 4", **Composition #7** Wood, glass jar, 16" × 13" × 4"

이중적 읽기를 요구하는 매트리의 작업 전반에 나타나는 질문과 답의 맥락은 <낙서Doodle>라는 일련의 작업에서 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낙서는 드로잉과 입체를 하나로 묶은 작업이다. 벽면에는 이 작업의 초안 같은 연필 드로잉이나 A4용지의 문서들이 핀에 꽂혀 있다. 벽면에서 선반을 만들어 붙이고 그 위에 유리병을 놓거나 비스듬히 기울려 놓거나 밑면에 붙여 놓기도 한다. 유리병 뚜껑에 휘어지는 나무bending wood를 연결해서 병 속을 외부와 연결시키고 공간을 유통시키려 하지만 유리병의 입체감보다 선조가 강조됨으로 벽면의 드로잉과 일체감을 유도한다. 그 일체감은 오브제의 무게감을 탈가시킨다. 오브제조차 드로잉의 일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선반의 가로무늬도 드로잉 요소로서 벽면과 오브제의 직선과 곡선, 사선과 타원의 선들이 갖는 강한 인상을 견제해준다. 그의 낙서는 하나의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공간의 배후와 연관에서 보게 됨을 일러준다. 배후는 오브제가 놓이는 현실 공간이라는 면에서 때로는 우연적일 뿐이다.

그의 작품은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롭기 원한다.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은 수평선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수평선은 중력의 전형적 사례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지점처럼 여겨진다. 그 선은 사물을 경계에 두고 보게 하고 자유롭게 놓아준다. 그의 작업은 사물을 수평선처럼 하나의 기선을 제시하면서 기선의 접면을 통해 사물의 다자성을 읽게 만든다. 그 다자성이란 접면에 의한 사물보기에 대한 또 다른 유연함이 아닐까.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온전한 형태일 때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언제나 어떤 기준점 위에 놓여 우리에게 보인다. 그리고 놓인 기준점 아래는 우리의 시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놓여진 아래로 시선을 돌려볼 때 그것은 보다 온전해진다. 아래와 위를 함께 보는 것, 중력과 무중력을 함께 지각할 때 비로소 사물은 온전하게 보이고 세계는 하나의 고정된 것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바뀐다. 매트리의 물음과 답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Table, 2007
4" × 5" × 5"



Line Drawing_VIII (20 percent), 2007
Glass, enamel, melamine
8" × 16" × 5"



Line Drawing_VII, 2007
Wood, acrylic
6" × 8" × 12"





1, 2008



5, 2008



7, 2008



Still Life, 2008



Still Life, 2008



Still Life, 2008



Still Life, 2008



Shim Chair, 2007



MATTHEW ALDEN PRICE

alden.matthew@gmail.com

EDUCATION

MFA, Ceramics 2007 : Cranbrook Academy of Art; Bloomfield Hills, MI
 BFA, Ceramics 2003 :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EXHIBITIONS

- 2009 Dutch Design Week, EKWC. Eindhoven, Netherlands (scheduled)
- 2009 The Clay Studio, Playing the Field, Philadelphia, PA (scheduled)
- 2009 Suka Art Space, Matthew Alden Price (solo). Busan, Korea
- 2009 Gana Art Gallery, Matthew A. Price & Won Kyoung Lee. Seoul, Korea

- 2008 Palm Springs Art Museum, 39th National Juried Exhibition, Palm Springs, CA
- 2008 Seoul Museum of Art, 14th National Arts Exhibition, Seoul, Korea
- 2008 Gallery in the Garden, curated by Eileen Tognini, Hawk Mountain, PA
- 2008 Portland State University, MK Gallery : Static/Flux, Portland, OR
- 2008 Fort Point Arts Gallery : Drift-some : Chwekun, Medlen, Price, Boston, MA
- 2008 The Clay Studio: Small Favors III : Philadelphia, PA
- 2008 Clay Art Center, Transformations : 6 x 6, Port Chester, NY
- 2008 Mercedes Corporation, Fine Art Exhibition, Farmington, MI

- 2007 The Clay Studio, "Marge Brown Kalodner Exhibition", Philadelphia, PA
- 2007 The Clay Studio, "Small Favors II", Philadelphia, PA
- 2007 Cranbrook Art Museum, Graduate Thesis Exhibition, Bloomfield Hills, MI
- 2007 Clay Art Center, "Cups Coming Together", Port Chester, NY
- 2007/05 Cranbrook Academy of Art, Forum Gallery Shows, Bloomfield Hills, MI
- 7 Kroner (2007), Abacadabra (2006), Sugar Show (2005)

- 2005 Womanmade Gallery, "Earth & Fire : Works in Clay", Chicago, IL
- 2005 Gallery International, "Art On Paper" Baltimore, MD
- 2005 Clay Art Center, Watershed Winter Residents 2005, Port Chester, NY
- 2005 ROY G BIV Gallery. Columbus, OH
- 2005/04 Imperial Art Museum, "Sculpture Salmagundi VIII". Rocky Mount, NC

- 2004 Lil' Street Art Center, Chicago, IL
- 2004 Arts Annex, The study of buoyancy. Columbus, OH
- 2004 Project One : Sculpture on the Beach. Newport, RI
- 2004 Choices "Art Through The Grapevine", Columbus, OH
- 2003 The Belmont Building, In collaboration with dust. Columbus, OH
- 2003 The Ohio State Fine Arts Exhibition, Columbus, OH
- 2000 Roesch Library : "The Borrowed Image", Dayton, OH



Line Drawing III, 2007
Porcelain, melamine, 28" x 72" x 12"



gana art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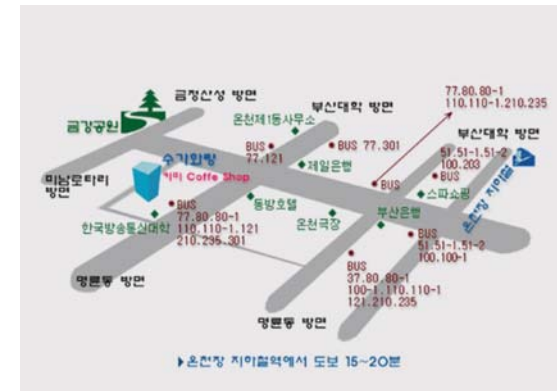
12.31(Wed) 2008 ~ 1.6(Tue) 2009
Opening Reception
12.31(Wed) 2008, 5~7pm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19번지 1층
전화 : (02)725-9258

Gana Art Space

1F 119 Gwanhoon Dong Chongro Gu Seoul, Korea
Tel : 82-2-725-9258
www.ganaart.com



수가화랑
SUKA ART SPACE

1.9 (Fri) 2009 ~ 1.30(Fri) 2009
Opening Reception
1.9 (Fri) 2009, 4pm

수가아트스페이스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204-22번지
전화 : (051)552-4402

Suka Art Space

204-22 Oncheon1Dong Dongrae Gu Busan, Korea
Tel : 82-51-552-4402
www.suka.co.kr